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6:46-49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반석과 모래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23일	6월 30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본문 : 눅6:39-45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은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을 인도하려면 반드시 가는 길,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맹인은 길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 남달랐습니다. 그들만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고 자연히 자신은 선하다는 생각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게 되고 율법을 기준하여 타인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은혜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거룩한 자로 여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주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속마음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관찮게 살아온 삶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설마 자신을 좋은 나무라고 여기시는 분은 없겠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못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가 되고 공로가 될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은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며 따라서 가지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의도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비판과 헤아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향한 감사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이며, 그 같은 열매는 그 마음에 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악으로 가득한 본래의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심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였다는 이 믿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행함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자라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오고 맺어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자연히 나의 행위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만 부각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